

**- 희망 언어 - - 어법 총정리 -**

2009년. 6월. 고1. 전국연합. 11번

11.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할머니, 올해도 건강하세요.
- ②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 ③ 작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 ④ 도서부장, 선생님께서 너 빨리 오시래.
- ⑤ 철새가 날라가는 모습을 보니 어떨습니까?

정답 : ②

2008년. 6월. 고1. 전국연합. 12번

12.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 ② 아직 여기에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나는 학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 ④ 그 선생님은 국어를 교육시키는 분이다.
- ⑤ 보세요, 종이비행기가 잘 날라가지 않습니까?

정답 : ①

2008년. 10월. 고1. 전국연합. 12번

12.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가난한 이웃을 한결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 ②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거나 이용하면서 살았다.
- ③ 이번 경기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예상이다.
- ④ 이 배는 사람을 싣고 강을 건넌다.
- ⑤ 모름지기 학업에 최선을 다하자.

정답 : ①

2004년. 수능. 13번

13. 표현이 바르게 된 문장은? [1점]

- ①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어 나릅니다.
- ② 우리 모두의 바람은 가족의 건강이야.
- ③ 모금한 돈이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 ④ 내년에는 수출량을 더 늘려야 한다.
- ⑤ 감장을 직접 담아 드십니까?

정답 : ④

12.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01. 단어(어휘)의 잘못된 사용 → <구별하여 쓰기> print 로 정리

- ① 찐 달걀은 (꺾질 / 꺾데기)을/를 벗기고 소금에 찍어 먹어라.
- ②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도 많이 상승했다. (X) → 성적도 향상됐다. 높아졌다. (O)
- ③ 나 연필 한 개만 빌려 빌려줘. (X) → 나 연필 한 자루만 빌려 빌려줘. (O)
- ④ 꾸준히 운동을 하니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X) → 꾸준히 운동을 하니 몸이 아주 좋아졌어요.(O)

02. 문장 성분의 **호응 (=문장 성분의 결어)**

- 문장 종결 표현
- 높임 표현

- 시간 표현
- 사동 표현
- 피동 표현
- 부정 표현

**호응이란?** 부르고 대답하는 것처럼 앞뒤가 서로 어울려야 하는데, 이를 호응 관계라 한다.

- ① 높임의 호응
- ② 시간의 호응
- ③ 동사의 호응
- ④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 ⑤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 ⑥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⑦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 ⑧ 조사와 서술어의 호응
- ⑨ 필요한 성분은 다 갖추고 있는가?

**① 높임의 호응 : → <높임과 낮춤법> print 로 정리**

예 동생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 → 할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렸다.

**- 2000년. 수능. 2번 -**

2. (물음) 어법 사용의 잘못이 남성 통화자의 경우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 가게가 어딘지 정확히 가르쳐 봐.
- ② 철수야,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
- ③ 혜영아, 저녁에 서울역전 앞에서 만나자.
- ④ 어제 저녁에 한솔이네랑 외식 먹으러 갔었어.
- ⑤ 내가 너 네 집으로 가는 것보다 너가 우리 집으로 와라.

정답 : ②

**② 시간의 호응 : → <시제 개념과 문제> print 로 정리**

- 예 초등학교 시절 그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두 살이나 적다. → '적었다'
- 예 영희와 내가 처음 만나 것은 우리가 대학교 삼 학년이 되는 해의 겨울이었다.  
→ **형용사의 경우 과거 시제에는 '-던'을 사용해야 한다.**  
→ 영희와 내가 처음 만나 것은 우리가 대학교 삼 학년이 되던 해의 겨울이었다.
- 예 호철이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믿는 중이다.  
→ '믿다'가 **상태성 동사이므로, 현재 진행형으로는 '~고 있다.'**로 써야 한다.  
→ 호철이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믿고 있다.
- \*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 문장에 쓰인 '-겠'은 미래 시제가 아니고 '추측'의 의미만 표현한다.  
예 지금 서울에도 비가 오**겠**다.  
예 어제 정말 좋았**겠**다.

• 완료 시제의 사용

- 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다**.
-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국어에는 완료 시제가 없다. 과거 시제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 '-었었-/았었-'은 현재와 단절된 느낌, 단순 과거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 쓰이나 결국 과거 시제이다. '-았-/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거 시제에 '-었었-/았었-'을 쓰는 것은

어색하다.

• 추측형 남발

- ㉠ 영화가 매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X)  
→ 영화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O)
- ㉡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시니 참 기쁜 것 같아요.  
→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시니 참 기뻐요.
- ㉢ 저는 지금 몹시 배가 (고픈 것 같아요 / 고파요)

③ 동사의 호응

(1) 용언의 잘못된 활용

→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법

㉠ 명령형 어미 '-어라'와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 ㉠ 철수야 일어나라.(동사)
- ㉡ 오늘부터 착해라.(형용사)
- ㉢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세요.(형용사)

㉡ 기본형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 ㉠ 그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동사)
- ㉡ 꽃이 매우 아름답는다.(형용사)

㉢ 기본형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 ㉠ 산을 보는 나(동사)
- ㉡ 맛이 달는 과일(형용사)

㉣ '의도'를 뜻하는 '-려'나 '목적'을 뜻하는 어미 '-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면 동사

- ㉠ 김씨는 공책을 사러 나갔다(동사)
- ㉡ 영자는 예쁘러 화장을 한다(형용사)

(2) 형용사의 잘못된 사용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있을 수 없다.

- ㉠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X) →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O)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X) →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O)  
여러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 행복하게 지내세요)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 영원하기를)
- 발표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모두 조용하세요. (X) → 조용히 하세요. (O)

(3) 동사의 잘못된 사용

무심코 쓰는 표현 중에서 동사에 필요 없는 접사를 붙여 쓰거나 잘못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 ㉠ • '되다'의 오용(피동의 남발)
- ㉡ 일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X) →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O)
- ㉢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X)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O)
-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생각합니다)

- '-시키다'의 오용(사동의 남발) -타동사 '-하다'에 쓸데없이 '-시키다'를 붙여 쓰는 것
  - ㉠ 그 선생님은 영어를 교육시키는 분이다. (X) → 그 선생님은 영어를 교육하는 분이다. (O)
  - ㉡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 소개해 줄게)

• 우리말 어법에서는 피동정보다는 능동형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그 책은 용수에 의해 순희에게 주어졌다. (X)  
→ 용수가 그 책을 순희에게 주었다. (O)

• 어간이 ‘-ㄹ-’로 끝나는 용언의 잘못된 활용

예) 평화롭게 잠들은 저 아이를 보세요. (X)→ 평화롭게 잠든 저 아이를 보세요.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X)→ 거친 벌판으로 달려가자.  
나는 영어 실력이 부족(늘은 / 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설은 / 낮선) 사람이 찾아왔다.

(4) 용언의 잘못된 활용

① 기본형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 :

예) 푸르른 하늘 (X)→ 푸른 하늘  
예) 나는 가슴이 (설레인다 / 설렌다)  
예) 여기에 주차를 (삼가해 /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서슴치 / 서슴지) 말고 손을 드세요.

② 어미를 잘못 사용한 오류 : 형용사에 동사형 어미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알맞는 답을 고르시오. (X)→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③ 어간에 불필요하게 ‘ㄹ’ 을 살려 쓰는 경우: 어간이 ‘ㄹ’로 끝나는 용언을 활용할 때 ‘ㄹ’을 살려 쓰는 오류

예) 평화롭게 잠들은 저 아이를 보세요. (X)→ 평화롭게 잠든 저 아이를 보세요.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X)→ 거친 벌판으로 달려가자.

④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특정)부사어와 (특정)서술어의 호응

일부 부사어는 문장 속에서 특정한 서술어와 호응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예) 그 사람이 확실히 사랑에 빠졌을지 모른다. → ① 그 사람이 확실히 사랑에 빠졌다.  
② 그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지 모른다.

⇒ 부사어 ‘확실히’와 서술어 ‘모른다’가 호응을 이루지 못하므로 ①,②의 예문처럼 고쳐 써야 한다.

④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

부사어 중에는 특정한 서술어와만 호응 하는 경우가 많다. → <구조어의 올바른 사용> print로 정리

• ‘비단’ 은 ‘-만은 아니다’와 호응

예) 목이 마른 사람이 비단 너만은 아니다.

• ‘모름지기’ 는 ‘-해야 한다’(당위)와 호응

예) 학생은 모름지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 ‘별로(그다지)’ 는 부정어와 호응

예)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는 별로(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 ‘여간’ 은 부정어와 호응

예)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시험에 합격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 ‘결코’ 은 부정어와 호응

예)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예) 인간은 자연을 지배도하고 때로는 순응해 가면서 산다. (X)

→ 인간은 자연을 지배도 하고 때로는 자연에 순응해 가면서 산다. (O)

기본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성분을 생략하면 문법성을 잃게 된다.  
위 문장은 '인간은 자연을 지배한다'와 '인간은 자연에 순응한다.'의 두 문장이 결합될 때, '자연'은 목적어이고 '자연에'는 부사어로서 같은 성분이 아닌데도 생략되어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⑤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 예)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 ⇒ '우리의'는 관형어인데 '나아가다'라는 용언 앞에 쓰여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문장 안에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수식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우리말의 문장 구조는

- ㉠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 ㉡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한다.
- ㉢ 두 개 이상의 수식어가 하나의 피수식어를 꾸밀 때에는 긴 것을 앞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주어에 대응하는 서술어, 서술어에 대응되는 주어가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문장의 기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어야 한다.  
우리말의 특성상 주어가 생략되거나 이중 주어가 오기도 하는데,  
이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

- 예) \*내가 예식장에 들어섰을 때에는 이미 끝난 후였다.  
→ 서술어 '끝나다'에 호응해야 할 주어 '결혼식이'가 생략되어 호응에 어긋난 경우이다.  
내가 예식장에 들어섰을 때에는 결혼식이 이미 끝난 후였다. (O)
- 예) \*더욱 난처한 일은 이젠 그만둘 수도 없게 되었다는 일이다.  
→ 주어와 서술어가 반복되어 호응이 어색한 경우이다. (일은 ~것이다)  
㉠ 더욱 난처하게도 이젠 그만둘 수도 없게 되었다. (O)  
㉡ 더욱 난처한 일은 이젠 그만둘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O)
- 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든다.  
→ 주어에 맞지 않는 서술어를 쓴 경우이다. '노력'과 '비용'은 '들다'와 호응되지만, '시간'은 '걸리다'와 호응한다.  
㉠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 (O)  
㉡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필요하다. (O)
- 예)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X)  
→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O)
- 예)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하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이 소모된다. (X)  
→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하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X)
- 예) 내가 과학 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이공계열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큰 몫을 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대우를 잘 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X)

- 내가 과학 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이유는) 이공계열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큰 몫을 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대우를 잘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O)
-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 (X)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이다.(O)  
 → 주어가 '말은'이므로 '바란다.'를 '바라는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 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 지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학교에 지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 지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⑦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밥을 먹다', '물을 마시다'와 같이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서도 호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예) \*이 버스는 사람이나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  
 → '사람을 태우다' '짐을 싣다'와 같이 호응되는 것이 옳다.  
 이 버스는 사람을 많이 태우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 (O)
- 예) 나는 노래와 춤을 잘 춘다. (X)  
 → 나는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춘다. (O)

⑧ 조사와 서술어의 호응

- 예) 그는 초보치고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 →조사 '치고'는 앞말과 대립되는 뜻의 서술어와 호응한다  
 → 그는 초보라서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
- 예) 첨단 통신 수단의 발달은 거리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해 준다.  
 → '구애받다'라는 서술어는 처소격 조사 '에'와 호응한다.  
 → 첨단 통신 수단의 발달은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해 준다.

잘못된 조사 사용

- a. 그 때 나는 학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고)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O)  
 직접 인용은 '라고(라는)' 을 사용 (^하고)  
 간접 인용은 '고(는)' 을 사용한다.
- b. 우승하겠더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는 / =우승하겠다( -고 하)는)
- c. 독도 문제를 일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에)  
 무정물 + 에  
 유정물 (사람, 동물)+ 에게 / 존칭 + 께
- d. 눈이 큰데 귀가 작다(눈은 귀는)
- e. 이천 년대의 식량 문제를 대처할 방안을 생각하자 (~에)
- f. 우리 축구 대표팀이 프랑스 대표팀에 5:0으로 이겼다 (~을)
- g. 우리는 이제 아시아에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에서)
- h. 재해 지역 선포를 대통령에 요청했다 (~께/~에게)
- i. 단체 + 에서

⑨ 필요한 성분은 다 갖추고 있는가?

- 주어의 부당한 생략  
 예) 나는 순이를 좋아하지만, \*나를 좋아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순이가)
- 서술어의 부당한 생략

- 예) 중국의 땅덩이\*와 인구는 많다. (\*는 넓고)
- 목적어의 부당한 생략
- 예) 작품에 손을 대거나 \*파손 행위 금지 (\*작품을 파손하는)
- 부사어의 부당한 생략
- 예) 인간은 신을 숭배하지만 때로는 \*도전하기도 한다. (\*신에게)

### 03. 불필요한 성분의 중복

#### ① 동일 단어의 중복

- 예) 그 선수의 장점은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잘 보내 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그 선수의 장점은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잘 보내 준다는 것(점)이다.
- \*\*\* 장점은 ~~~것이다.
- \*\*\* 장점은 ~~~점이다.
- \*\*\* 것은 ~~~사실이다.
- 예) 나는 방학 기간 동안 공부를 실컷 했다. (방학 동안)

#### ②의미의 중복 → <중복된 표현 고쳐 쓰기> print 로 정리

- 예) • 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악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 나는 그가 겉보기에 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 그의 사상이 밖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 나는 열심히 공부에 열중하여 장학생이 되겠다.

• **중복 표현:** 가까운 근방. 같은 동포. 겪은 경험. 계속 속출. 고목 나무. 과반수 이상. 긴 장대. 날조된 조작극. 남은 여생. 넓은 광장. 높은 고온. 다시 복습. 담임을 맡다. 더러운 누명. 따뜻한 온정. 모두 다. 미리 예비. 밖으로 표출. 새 신랑. 서로 상충. 스스로 자각. 쓰이는 용도. 앞으로 전진. 어란 소녀. 역전 앞. 완전히 전멸. 음모를 꾸미다. 이름난 명산. 좋은 호평. 죽은 시체. 처갓집. 청천 하늘. 축구를 차다. 큰 대문. 탈꼴지에서 벗어나. 투고한 원고. 폭음 소리. 푸른 창공. 허연 백발. 혼자 독학

- 2005년. 6월. 평가원. 15번 -

15. <보기>의 ㉠, ㉡과 의미 중복 유형이 가장 유사한 단어는?

㉠ '저희들'이나 ㉡ '너희들'은 '-희'가 복수성을 가지고 있어 '저희', '너희'만으로 복수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다 다시 '-들'을 붙여 '저희들', '너희들'처럼 앞 말의 일부를 중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 ① 뺨골                      ② 외갓집                      ③ 씹씹이 ④ 단웃날                      ⑤ 교차로

정답 : ②

#### ③한자어의 중복

- 예) •우리 역전 앞에서 만나자.
- 그는 새로운 신곡을 발표했다.
-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때이다.
- 적군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 ④문장 성분의 중첩

- 예)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 나의 사랑하는 생활

→ 내가 사랑하는 생활

⇒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가 중첩되어 어색한 표현이 되었다.

문장 안에서 동일한 성분이 중첩되면 형식상으로 비문(非文)일 확률이 높고, 의미상으로는 내용이 중복되기 쉬워 문법성을 잃게 된다.

- 규칙에 어긋난 문장 접속

겹문장 →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되지 않을 때

예) 한국인은 은근과 끈기를 지닌 민족이며, 서양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이다.

(→ 미래를 지향하는 민족이다.)

#### 04. 명사화 • 관형화 구성의 잘못

##### ① 과도한 관형화 구성 (부자연스러운 관형화 구성)

- 관형화 구성의 실현 방법 : ① ‘-(으)ㄴ, -(으)ㄹ, -는’을 이용

② 관형격 조사 ‘의’를 이용

예) 국산 영화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입관을 먼저 버려야 한다.

→ 우리 자신이 국산 영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먼저 버려야 한다.

예) 유구한 빛나는 전통 문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X)

→ 유구하고 빛나는 전통 문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O)

꾸미는 말을 중첩하여 쓰거나, 전체 문장의 의미에 비추어 관형화 구성을 하지 않고

무조건 꾸며 쓰게 되면 비문(非文)이 될 확률이 높다.

우리말에서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거나 부사어를 사용하여 서술형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② 과도한 명사화 구성 (부자연스러운 명사화 구성)

- 명사화 구성의 실현 방법 : ① ‘것’을 이용

② ‘-음’을 이용

③ ‘-기’를 이용

④ 명사 나열

예) 그대 있음에 나는 행복함을 느낀다.

→ 그대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예)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X)

→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O)

우리말에서 명사화 구성을 남용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기 쉽다.

우리말은 용언이 발달한 언어이므로 명사화하여 표현하는 것보다

동사와 형용사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 관형화 구성을 바르게 하는 방법

→ 수식어를 중첩하여 쓸 때(중복수식) / 방법- 관형화를 하지 않고 무조건 꾸며 쓸 때

① 유구한 빛나는 전통문화를 단절 시킬 가능성이 큰 유통성 없는 문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유구하고 빛나는 전통문화를 단절 시킬 가능성이 큰, 유통성 없는 문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② 그것은 세계적인 유명한 작곡가이다. / 이렇듯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은 없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이다. / 이렇듯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은 없다.

③그 해답을 풀 수 있느냐는 유전 공학 분야의 전공자들에게 달려있다.  
그 해답을 풀 수 있느냐는 유전 공학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④초라한 쓸쓸한 그의 행색을 본 사람들은 그에 대한 동정심을 금치 못했다.  
그의 초라하고 쓸쓸한 행색을 본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다.

• 명사화 구성을 바르게[것, 기, 음]

→명사화를 남용 할 때(명사어구 중복(중첩) / 방법-생략하거나, 동사 형용사로 풀어 준다.

①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예상된다. ←명사어구 남용)

②잠실 방면으로는 진행이 더딤을 보입니다(더디게 진행합니다)

③가정은 사회적 덕목 계발의 보금자리이다(사회적인 덕목을 계발하는)

④겨울에는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 05.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의 남용 - 번역투의 문장 사용

예 • 그 사람은 선각자에 다름아니다.

→그는 선각자나 다름없다./ 그사람은 선각자라 할 만하다.

• 그의 작품은 이러한 주목에 값한다.

→그의 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도록 하자. (~have)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자.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자.

• 불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불조심은 아무리(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불조심은 늘 강조해야 한다.

• 나는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about)

→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 학생 회의에 있어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식 표현)

→학생 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춘향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배 침몰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with)

→춘향호가 침몰하자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사망했습니다.

### •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의 남용

(1) 조사 '의'의 남용

우리말다운 표현을 위해서는 조사 '의'에 의한 과도한 수식을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의'를 없애거나, 다른 조사로 바꾸거나,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서술어로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예 언어의 순화의 방향의 설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언어를 순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2) 국어에 없는 직역 표현의 사용

① '~에 의해'

- 예) 국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는 소문이 우리 반에 의해 전교로 퍼져 나갔다.  
→ 국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는 소문이 우리 반에서 전교로 퍼져 나갔다.
- ②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 인간관계에서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 ③ ‘~을 가지고 있다’  
예) 그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다.  
→ 그는 아들이 둘이다.

(3) 피동형의 남용

우리말 어법에서는 피동형보다는 능동형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예) 그 책은 용수에 의해 순희에게 주어졌다. (X)  
→ 용수가 그 책을 순희에게 주었다.
- 이중 피동 남용  
예) 재미있게 읽혀지는 책이 별로 없다. (X)  
→ ‘읽히다’ 가 이미 피동형인데 ‘-어지다’ 가 붙어서 이중 피동이 되었다.  
재미있게 읽히는 책이 별로 없다.

(4) 사동형의 남용

- 예) 우리 공장에서는 기계를 하루 종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 우리 공장에서는 기계를 하루 종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5) 한자어의 남용

- 예) 오늘 회의에는 동일한 사고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집합하였다.  
→ 오늘 회의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 예)

06.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의 유형

(1) 수식 범위의 모호성 •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거리는 가까워야 한다.

- 예) 그는 어제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났다.  
→ 그는 고향에서 온 친구를 어제 만났다.
- 예) 내가 좋아하는 방송국의 현철을 만나고 싶다. (ㄴ, ㄹ \_\_A의 B 구조)

- 예) 경찰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나는 도둑을 쫓아갔다.

- 예) ⇨ ‘어제’라는 시간의 부사가 ‘온’을 꾸미는지 ‘만났다’를 꾸미는지 불분명한데, 이 문장이 후자를 뜻하는 것이라면 서술어 바로 앞에 ‘어제’를 놓아야 수식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2) 비교 대상의 모호성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 문장을 써야 한다.

- 예)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 ①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  
②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예)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남편♡비디오>나 남편♡비디오> 나♡비디오)

⇒비교 대상이 ‘어머니’와 ‘아버지’인지, ‘아버지’와 ‘나’ 인지 분명하지 않아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 되었다. 비교 대상을 분명히 밝혀서 고쳐 써야 의미가 분명해진다.

(3) 병렬 구문의 모호성

예) 나는 승철이와 순호를 만났다.

→ ① 나는 승철이도 만났고, 순호도 만났다. ② 나와 승철이와 함께 순호를 만났다.

예) 나는 빵과 우유를 마셨다.

⇒ 승철이와 순호를 각각 만난 것인지, 승철이와 함께 순호를 만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병렬 구문이 주어와 이어지는지 목적어와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밝혀서 고쳐 써야 한다.

접속 조사 ‘와/과’로 묶이는 것들을 서술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이어진 문장 중에는 주어 여러 개가 접속 조사 ‘와/과’로 이어져 있고 서술어는 하나뿐이어서  
마치 흘문장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예) 그는 폭넓은 독서 와 부지런히 운동을 하는 멋진 남자야.

→ 그는 폭넓게 독서하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는 멋진 남자야.  
‘폭넓은 독서’는 구이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는’은 절이므로 균형있게 하려면.....

예) 기재 사항의 정정 또는 금융 기관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기재 사항의 정정이 있거나 또는 금융 기관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기재 사항의 정정’은 구이고 ‘금융 기관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은 절이므로.....

예) 졸업식 날,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독서를 권하셨습니다.

→ 졸업식 날,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공부와 독서를 열심히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4) 의존 명사 구문의 모호성

예) 박찬호가 공을 던지는 것이 이상하다.

예) 박찬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 의존 명사 ‘것’이 의미하는 바가 확실하지 않아서 모호한 문장이 되었다.

의존 명사가 가리키는 바를 명확히 해야한다. 의존 명사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관형어 ‘그’와 의존 명사 ‘것’의 합성어인 지시 대명사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의문이 되기 쉽다.

(5) 부정문의 모호성

예) 나는 어제 택시를 탄지 않았다.

예) 은주는 항상 늦지 않는다

→ ‘절대로 늦는 법이 없다’는 것인지, ‘대체로 늦지만 안 그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6) ‘의’를 포함한 명사구의 사용

예) 탁자 위에 어머니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 ‘어머니 소유의 그림인지’, ‘어머니 모습을 그린 그림인지’, ‘어머니가 그린 그림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 모호한 문장 해결법

㉠ 첨표 넣기 / ㉡ 어순 바꾸기 / ㉢ 말을 첨가

예 끝까지 신문사에 남아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_\_\_가 신문을 한정? \_\_\_언론 투쟁?)

→끝까지 신문사에 남아, \_\_\_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첨표를 넣음)

→신문사에 남아 끝까지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어순을 바꿈)

- 2006년. 10월. 전국연합. 13번 -

13.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ㄱ~ㄴ을 분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 보 기 > —

중의성(重義性)을 가진 구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구성이 중의성을 가진 구성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구성요소는 하나의 구성을 일단 둘로 쪼갠 때 그 각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푸른 가을 하늘’의 직접구성요소는 ‘푸른’과 ‘가을 하늘’이다.

- ㄱ.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 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는 한마을에 살았다.
- ㄷ.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부지런한 거북이가 이긴다.

- ① ㄱ은 토끼와 거북이가 모두 게으르다는 의미와 토끼만 게으르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중의성을 가진 구성이다.
- ② ㄴ의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에는 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중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 ③ ㄷ의 경우 ‘부지런한’을 고려하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는 토끼만 게으르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④ ㄴ에서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의 직접구성요소는 ‘게으른’과 ‘토끼와 거북이’이다.
- ⑤ ㄴ과 ㄷ을 통해서 중의성을 가진 구성이라도 문맥에 따라서는 그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 ④

- 핵심 맞춤법 규정 -

01.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한글 맞춤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예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먹이(먹- + -이), 해돋이(해+돋- + -이)
-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예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울- + -음)
-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예) 같이, 굳이, 길이, 높이, 실없이, 많이(많- + -이)

-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예)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굽도리, 목거리(목병)-'목'은 어간의 뜻과 멀어짐